



경영학과, 2014 중앙일보 학과 평가 '상' 등급

교수·직원·동문이 삼위 일체로 노력한 성과

학교	학과	등급	교원1인당 학생수 (명)	전임1인당 논문 (편)	전임1인당 국제논문 (편)	전임1인당 지역서 (편)	전임1인당 자체연구비 (천원)	전임1인당 교외연구비 (천원)	재학생1인당 장학금 (천원)	취업률 (%)	중도탈락률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최상	35.3	0.68	0.24	0.10	22297.8	34279.2	2136.0	66.8	1.8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최상	23.4	0.45	0.26	0.12	20715.2	20327.9	2146.7	80.6	0.8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상	14.4	0.50	0.26	0.18	11411.0	19255.7	2297.5	87.7	0.8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최상	29.9	0.51	0.20	0.19	96159.8	25844.4	2498.2	83.1	1.4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상	23.7	0.73	0.09	0.09	13183.1	20265.7	2490.1	61.7	2.2
부산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전공	상	27.1	1.38	0.08	0.13	6031.0	10358.3	1774.0	66.9	1.3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상	25.7	0.60	0.19	0.08	8462.3	23395.0	1916.3	72.4	1.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상	28.4	0.44	0.14	0.04	1170.6	27977.6	2275.7	81.7	0.5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상	23.5	0.76	0.21	0.11	2246.7	18081.7	2144.1	64.4	1.3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상	30.9	1.15	0.14	0.02	7348.1	10340.8	2100.2	65.7	1.9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상	23.5	0.56	0.24	0.08	5550.3	11530.9	2031.1	72.3	2.0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상	28.6	0.79	0.15	0.10	6701.7	30053.2	1652.7	69.0	1.6

타 학교와 비교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각 부문별 평가 상세 내역 (자료제공 : 중앙일보)

지난 9월 1일, 중앙일보는 2014년 대학 평가 인문-사회계열 8개 학과 평가를 발표했다. 우리대학 경영학과의 유일하게 상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학교가 단지 네 개에 불과하며 아쉽게도 바로 아래에 랭크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대학 학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교수역량, 재정지원, 교육 효과 등 4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에 바탕이 되는 자료는 교육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과 점수를 집계한 다음 해당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선별된 학교의 점수를 표준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데, 이 중 상위 학과는 2.29~15.9%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대학들이며 중상위 학과는 16~50%에 해당된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부문에서 23.7명으로 대학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490,100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전임교수 1인당 논문은 0.73편, 국제논문은 0.09편,

지역서는 0.09편이다. 또한 전임교수 1인당 자체 연구비는 13,183,100원, 교외 연구비는 20,265,700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영대학(학장=이영면)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5년 전 최초로 한국 경영교육인증 획득에 이어 지난해 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 세계 5%만이 인증을 받는 AACSB(국제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위해 교수·직원·동문이 삼위 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대학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증에 대비 교원 초빙을 확대하였으며 교수들에게 특별히 교재개발 및 교수법 향상을 위한 연구비로 강좌당 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제화 기금으로 매년 3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경영대학은 대학 본부와 별도로 매학기 영어강좌 강의 평가를 하여 최우수교원에게는 상장과 상금 1백만원을 전공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우수교원 4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5십만 원을 수여하는 등 격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임교원들의 논문수 및 연구비 수입의 증대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지난 2012년 8월 동문들과의 논의 결과 경영대학 비전에 걸맞는 우수 인재를 육성키 위해서는 장학금 조성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후 경영학과 동창회장을 비롯 동문 7명이 자발적으로 기금조성 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뛰었다. 11월 15일 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지면안내

공인회계사 25명 합격	2면
로터스 조찬 경연회	3면
경영전문대학원 남산건기대회	4면
경영전문대학원 소식	5면
동문 CEO 창업 특강	6면
금융권 취업 특강	7면
DK 글로벌 장학생 인터뷰	8-9면
학생 CEO 인터뷰	10면
경영대 생활	11면

공인회계사 25명 합격, 전국 11위 달성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8일 오후, 2014년도 제 49회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하 CPA)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2차 시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차 시험 혹은 올해 1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차 시험 과목(5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정의 6할 이상 받은 응시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인 850명을 초과하여, 절대평가로만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해에 발표된 최종 합격자는 총 886명이었고, 이는 지난해 합격자 수와 대비하여 18명 감소한 인원이다. 더불어 과목별 부분합격자는 총 1,206명이다.

우리학교는 이화여대 28명에 이어 총 25명의 합격자가 나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교별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합격자 총수로는 이화여대에 앞서 10위를 마크하고 있다. 1과목 남은 부분합격자가 수명에 달해 아쉬움이 있음을 밝힌 공인회계사반 조광희 지도교수는 10위권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과별 합격자를 살펴보면, 회계학과가 18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 수를 기록했고, 그 뒤를 경영학과가 잇고 있다. 비 상경계열에서도 3명의 합격자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우리 학교 2014년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명단이다. (학과별 가나다 순)

회계학과 : 고일태(08), 권순형(08), 김진희(07), 김형진(06), 김혜지(08), 박건화

(08), 송태호(06), 안용현(07), 오민지(08), 오승민(07), 오지숙(05), 이용협(07), 이종희(07), 장영경(06), 조민영(11), 조한주(04), 최정환(09), 허성지(03)

경영학과 : 권준태(06), 박수민(03), 이석민(03), 이창민(02)

기계공학 : 이송배(98) 전자전기공학 : 나현(10)

통계학과 : 최정현(05) (이상 25명)

한편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두 학기의 학비를 100% 감면받게 되며, 최종합격한 학생은 변리사 및 각종 고시 합격자와 같이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반 입반 등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반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이미소 기자**

경영대학 베스트 티칭 어워드 수상자 선정

2014-1학기 영어강좌 Best Teaching Award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Best Teaching Award는 영어강의 확대

및 강좌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매 학기 우수한 수상교원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선정 대상은 전 학기 경영대학에 개설되어 15명 이상 수강한 전임교원 담당 영어강좌다. **노창훈 기자**

구분		교과목명	담당교원
최우수 강좌		기업재무	전진규
전공필수 강좌	1위	운영관리	임성묵
	2위	재무관리	윤선중
전공선택 강좌	1위	브랜드관리	여준상
	2위	금융론	강경훈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당일 김철순 동창회장을 비롯 총 239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현장에서 십억원이 넘는 거액을 약정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영대학에서는 지난 2011년 기금 모금 및 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기금관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2013년 경영대학장 및 동문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장학기금 확대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앞으로 재학생 장학금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하락한 취업률(61.3%)이지만 (2014년 72.1%로 회복) 앞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대학은 그 위상을 더욱 더 높이고자 현재의 경영관을 해화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모금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상위 등급을 차지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영대학의 업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남긴 것이며 앞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타 학교와 비교하여 부족한 항목들은 따라잡고 선전하고 있는 항목들은 더욱 발전시켜 학교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결과로 인해 경영대학뿐만 아니라 동국대의 위상까지 올릴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노창훈 기자**

6회차 로터스 조찬 경연회 개최



(上) 로터스 조찬경연회 참석자 기념 촬영. 김진문 회장(앞줄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이영면 원장(다섯번째), 권대욱 AA아코르 엠버서더 사장(여섯번째), 도충락 도충홀딩스 사장(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中)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 (사진 왼쪽)

(下) 로터스 조찬경연회 사회자 비즈아이 안영찬 대표와 준비를 도와준 학생들 (좌측부터 전민호, 김태형, 박희정, 진대화)



9월 16일, 6회차 로터스 조찬경연회가 개최되었다.

로터스 조찬경연회는 현업 최고 CEO들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최신 실무를 반영하여 트렌드를 읽고 쌍방향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강의를 추구하고 있다. Leadership, Operation, Trust, Ubiquitous, Sustainability를 기본 요소로 삼아 강의를 진행한다. 기존 지식이 쉽게 진부화 되는 현상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영 니즈에 부합하는 상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Creator 역할을 하는 수강자

역량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강의는 신성약품의 김진문 회장(경영 59)이 강연을 맡았으며 ‘무신불림의 정신과 마케팅’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기업의 3대 구성요소인 자본과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며 조직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임을 강조했다. 구성원들의 신뢰가 없다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무신불림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10월 21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인사 담당 한성권 부사장(경영 80)이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사 전략에 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노창훈 기자

2016년 한국 경영학회장 당선된 유창조 교수



유창조 교수

유창조 경영학부 교수가 2016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차기 한국경영학회장에 당선됐다. 유 교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를 통해 지난 9월 19일 당선이 확정됐다. 유

교수는 경영학 분야의 연구결과가 현실과 관계를 맺고, 또 실무에 기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온 분이다.

지난해 한국경영학회는 매일경제,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학계·정부·언론·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공유가치창출(CSV) 소사이터티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유 교수는 CSV 소사이터티 사무국장을 맡아 학계·

기업·정부·언론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주요 사업계획으로 △경영학회에 신진 교수 대거 영입 △퇴임 교수들의 역량과 경험 활용 시스템 구축 △경영학 분야 학술지의 SSCI 등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사운영실 제공

2014 동국 남산한마음 걷기 대회 행사



남산산책로 동선

오는 10월 25일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비롯하여 졸업생을 대상으로 '남산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린다. 만해광장에서 남산산책로를 따라 목격산장까지 걷는 이번 대회는 오전 9시50분에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본 행사는 매

년 졸업, 재학원우회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행사로, 이번 대회 참가자에게는 쓰리세븐 손톱깎이 세트가 선물로 주어진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 행사 홍보용 PAM은 Executive 김천용(8기) 원생이 지원했다.

김기섭 기자

MBA 원생 단체복 블랙야크 신상품으로 선정

MBA 8기 집행부에서는 원생단체복 제작을 의결하고, 동문인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MBA 1기)의 지원을 받아 2014년 가을신상품을 50% 할인가격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번 단체복 제작은 MBA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착용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도 동국대 MBA의 높은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매의 혜택을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체복은 오는 25일 남산 한마음 걷기대회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섭 기자



2014 가을 학위수여식



영예의 석사학위 수여자와 교수님, 이춘호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장(가운데 오른쪽에서 세번째)

경영대학 학부와 MBA(경영전문대학원)의 2014 가을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에 거행됐다. MBA는 8월 18일(월) 3시에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경영대학 학부는 8월 21일(목) 12시부터 경영관 3층(회계학과), 4층(경영학과), 5층(경영정보학과)에서 각각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각 학위수여식에는 이영면 학장을 비롯한 여러 주임교수들과 총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졸업자들의 가족과 선후배 또한 축하의 자

리에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 General MBA과정과 Entrepreneurship MBA과정 등 5개의 과정에서 16명이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영대학 학부에서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통틀어 학사 123명, 그리고 일반대학원에서는 4명이 석사학위를, 6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정희 기자

2014년 2학기 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8월 23일 MBA 203호실에서 2014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신입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수강신청과 학사안내, 원우회 조직 및 행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리더십MBA에서는 지난 9월 5일 MBA라운지에서 Leadership과정 별도로 선후배간 상견례를 가졌다. 최병순 주임교수, 8기 원우회장을 비롯하여 7~8기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섭 기자



글로벌CEO과정 원생들, 대경상고 학생대상 취업컨설팅 제공

지난 8월 30일 MBA의 글로벌 CEO 과정 원생들이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에 이어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대경정보산업고 주임교사이면서 MBA 리더십과정 1기인 김법년(7기)원생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MBA와 고등학교 간의 협력모델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행사는 글로벌CEO가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가운데 대경정보산업고 물류취업반 18명, 담당교사 3명의 참여 속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졌다. MBA 경영관 201호에서 강봉석 8기 원우회장((주)비전 21관광 대표)과 김동연(KB문

정동 부지점장)의 ‘인생과 꿈 비전(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제 강연에 이어 김동국(DHL 재경부팀장)의 ‘사회 생활과 자기개발(불합리한 미션 그리고 20마일 전진)’, 전용균(DHL 인사팀장)의 ‘물류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역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점심을 겸하여 소통의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과 대화가 오고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대경정보산업고 학생 두명은 원생사업자인 에이텍스에 취업하는 행운의 기회를 얻었다. 자체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자비경영을 실천하는 본 MBA 정신과도 일치하는 행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기섭 기자

중국 칭다오로 떠난 MBA 7기 졸업여행

지난 9월 2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MBA 7기 17명이 중국 칭다오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많은 원생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기섭 기자



동국대 크리스토퍼 리더십코스 1기 수료



크리스토퍼 수료식 축하 공연 장면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된 11주 동안의 크리스토퍼 리더십 과정이 지난 8월 22일(금) 수업을 끝으로 전체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김동수 원장(한국크리스토퍼리더십센터 총재)과 최병순 교수(MBA 리더십과정), 6명의 크리스토퍼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MBA 원생 15명

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원생들은 처음에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색했으나 수료할 즈음에는 전문적인 연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각자 나름의 실천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은 매우 뜻깊었다. 크리스토퍼리더십 과정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개인의 재능을 계발하면서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날 수료식은 1, 2부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수료자 모두 지난 여름의 고된 훈련을 상기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하해주었다. 김기섭 기자

전체 원생 대상 추석선물 지급

MBA집행부에서는 지난 8/29(금)부터 9/3(수)까지 전체 원생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 선물은 애경의 ‘순샘 주방세제’로 장애인 김태호 화가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원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자는 의도에서 원생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추석 선물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원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김기섭 기자



제2회 도총락 경진대회 오는 11월 27일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는 제2회 도총락 경진대회가 오는 11월 27일(목)에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MBA 원생들의 학습의욕을 진작시키고 경영에 관한 실천 경험을 쌓기 위한 것으로, MBA 6기 원우회장인 도총락 대표(도총출딩스)가 후원한다.

참가신청은 11월 14일(금)까지이며, 참가 방법은 제목, 참가자, 개요 등을 PPT 7장이내로 작성하여 mba@dongguk.edu로

제출하면 된다. 단 발표주제는 자유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으로 각각 3백만원, 1백만원의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관련 취업, 창업지원은 물론,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팀의 자료는 학술지 등재 및 매거진 게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상은 오는 12월 2일 2014동국MBA 송년의 밤 행사 때 이루어진다. 주최 측에서는 많은 원생들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섭 기자

CEO를 꿈꾸는 새내기들, 자신의 꿈을 만나다



권중근 대표의 강연에 함께한 자몽 동아리 학생들

지난 9월 16일, 각자 개성은 다르지만 ‘창업’이라는 동일한 꿈을 갖고 있는 창업 소모임 자몽(自夢)의 학생들이 그 꿈을 이룬 우리 학교 동문, 권중근 이메인텍 대표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권중근(경영 80) 대표는 현재 이메인텍(eMainTec)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로 활약하고 있다. 이메인텍은 1999년에 설립한 플랜트 설비관리 시스템 공급자로서, 일반제조 분야의 설비 및 발전·조선·자동차 분야 설비에 특화된 전문 설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 100여개 대기업 공장들의 설비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연매출 70억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중동, 남아미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 시간에 권중근 대표는 소모임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해 주었다. ‘친구와의 동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와 동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만약에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된다면 동등한 관계인지 상하 관계인지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구두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직원 동기부여’에 관한 질문에는 “경험상 스톡 옵션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 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원들에게 우리 사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든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멘토링을 통해 자몽(自夢)의 장(長)인 김범준 학생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청년 창업자들의 조언과 다르게,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만 생각해내려 하지 말고, 한 분야를 다년간 공부하여 쌓은 지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그동안 소모임에서 단순하고 비전문적인 창업 아이디어만 나온 것은 공부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멘토링 시간은 잠시 주춤했던 창업 소모임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향후 소모임이 지향해야 할 가치관과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몽(自夢)은 ‘스스로의 꿈’이라는 뜻으로, 14학년 새내기 20명으로 구성된 창업 소모임이다. 이들은 자몽(自夢)이라는 소모임을 통해서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소모임은 그 안에서도 관심사별로 다시 3개의 팀을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패션 및 파티 관련 프로젝트 기획팀, 자취방 관련 어플리케이션 기획 팀, 체육관 대관 웹 등의 기획 팀이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학습활동, 멘토링 활동, 체험활동 및 연구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소 기자, 노창훈 기자

글로벌 인재를 꿈꾼다면 ... 국제무역사

우리나라는 수출에 초점을 맞춘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무역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규모 발표를 참고하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변동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단계 상승하여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만큼 기업에서는 글로벌 인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무역사 시험 응시생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무역사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는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이다. 이 자격은 국내에서 무역 분야의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실무능력 검증뿐만 아니라, 무역 인력의 업무능력 강화 및 정보제공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무역과 연관된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등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공인 자격증은 현재까지 없으며 이 중에서도 국제무역사는 민

간 자격증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국제무역사 자격인증은 특별한 응시 자격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년에 2차례 시행된다. 시험 응시료는 4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시험은 180분이며 90분씩 2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진다. 1교시는 무역규범과 무역결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0문항에 4지 선다형이다. 무역규범의 세부내용으로는 대외 무역법, 통상/통관/환급, FTA, 전자무역이며 무역결제는 대금 결제, 외환실무로 이루어져 있다. 2교시는 무역계약과 무역영어로 구성되며 1교시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40문제씩 주어지고 4지선다형이다.

▶ 7면으로 이어집니다.

축제보다 더 뜨거웠던 금융권 취업 특강 현장으로



특강이 끝난 후, 학생들이 강의실에 남아 선배님께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저녁, 동국대학교의 열기가 축제로 뜨거웠을 그 무렵, 경영관 L501호는 취업 준비생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이 날, 본 강의실에서는 우리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선배의 취업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특별히 금융권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하 IBK) 입행을 위한 준비 방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본 특강은 IBK의 이재일 선배(06학번)와 신한은행의 김재현 선배(04학번)의 취업 수기를 주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Q&A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선배들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입원 면접까지, 각 단계별로 자신의 준비 방법과 대응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들은 입을 모아 “경제 신문을 꼭 읽을 것”을 강조했다. 취업 준비 당시, 이재일 선배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경제 신문을 스크랩하며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하였다.”고 말했으며, 김재현 선배는 “아침에 6시 30분까지 학교에 와서 2시간 동안 경제 신문을 정독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경제 신문 읽기를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면접 전형에서 경제 이슈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며, IBK의 경우 논술 문제에 매년 빠짐없이 경제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재일 선배는 “회사별로 기사를 스크랩할 경우,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최근 트렌드나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팁을 주었다.

이 외에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보는 사람이 읽기 쉽게 써야 하며,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성장과정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에는 ‘자신이 이뤄낸 성과’ 혹은 ‘자신의 실패 경험’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한 다음, 이 주제에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쓰는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쓸 때 두괄식으로 해서 주제를 맨 앞에 다 적는다든지, 각 질문별로 제목을 붙여서

주제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재현 선배는 “평소에 소심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으나, 면접에서는 ‘제가 먼저’라는 콘셉트를 정하여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면접관으로 하여금 열정적인 신입사원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보는 면접에서 본인이 먼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을 면접관에게 남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선배는 학교에 있는 취업준비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본관에 자리한 취업준비센터에서는 ‘모의 면접’, ‘취업 특공대’, ‘취업 캠프’ 등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일 선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행사들은 다 참여했으며, 특히 ‘모의 면접’의 경우 면접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과학관 3층에 위치한 ‘청년고용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업 준비 당시 이곳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아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이었지만, 강의를 준비한 선배들과 강의를 듣는 동국대학교 학생들 중 지켜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끝으로 두 선배는 강의를 들으러 온 후배들 모두 자신의 회사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말을 마쳤다.

이미소 기자, 한경석 기자

▶ 6면에서 이어집니다.

무역계약의 세부내용으로는 무역계약과, 운송보험 그리고 무역영어에는 무역영어와 무역 관련 규칙이 있다. 점수는 매 과목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에 해당한다.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취업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오늘날 주요 무역상사, 금융기관 등에서 인사고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 특성에 따라 해당 자격증 보유자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한 무역협회 주관사업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도 가점이 부여된다.

국제무역사는 무역관련 전공자도 일정 시간 학습이 요구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시험에 응시하면 실패하기 쉽다. 그러나 무역협회의 무역 아카데미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대비과정이 있으며 이 외에도 국제무역사 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전문적인 서적은 시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기 전 이와 같은 학습 방법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

택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무역 실무와 관련된 폭넓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험 준비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국제무역사는 지난 2월 33회 합격 발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6만 4027명이 응시, 이 가운데 1만 8152명이 배출되었다. 국제무역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와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www.tradecampus.com)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은영 기자

“후배들에게 도움주는 선배되고파”

DK글로벌 장학생으로 UTD를 다녀온 백설영 학생



경영학과 11학번 백설영

DK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지원 계기

평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보낸 메일과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어요. 경영대학에서 열린 UTD 학점교류 설명회에 다녀오고 나서 UTD로 가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영대에서 메일이 왔더군요. DK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메일이었는데, 장학 프로그램에 UTD로의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다!’ 싶었죠. 처음에는 장학금 액수도 크고 뽑는 인원도 적어서 ‘내가 선발 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다신 오지 않을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하고 지원해 보았습니다.

유학을 통해 배우고 싶은 공부

저는 유학을 통해, 첫째로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고, 둘째로는 미국의 문화에 대해 직접 느껴보고 싶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경영대 학생 대부분은 영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부족한 실력으로 영어 수업을 듣고 발표 하느라 많이 좌절하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 없이 했었어요. 이번 유학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영어발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했고요, 덩이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자유로운 미국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또한 경쟁과 압박이 덜한 환경에서 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미래를 그려서 돌아오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본인이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점 혹은 단점

저는 세계 역활이 주어지면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UTD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친구들 말이 너무 빠르고, 제가 의사전달을 잘 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팀에 묻어가는 건 정말 싫어서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 팀플 전에 항상 준비하고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듣고, 나름대로 짧게나마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나중에는 팀원들이 먼저 제 생각을 물어봐 주고,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뭐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은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저의 느긋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수업에 팀과제가 나오면, 저는 빨리 빨리 하고 끝내고 싶은데, 미국 아이들은 너무 느긋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는 저와 다른 미국 아이들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냥 ‘아 미국 애들은 원래 다 이런 마인드인가 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템포에 맞추어 천천히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영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좀 흔한 이야기지만, 해보고 싶은 것, 흥미 있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해보지 않아서 후회 할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그건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잘 안될 것 같아서, 혹은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서 등등, 변명이 될 이유는 참 많아요. 하지만 찾아보면 그 이유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외부의 기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대학생’ 신분일 때 뿐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 부쩍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거절당하고 좌절하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시도하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지원해본 DK장학덕에 미국에서 공부할 좋은 기회도 얻고, 도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인데,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는 후배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요.

유학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일화)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TOEFL 점수 만드는 거였어요. 교환학생에 요구되는 점수는 80점으로, 크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도 어찌나 힘들던지... 점수 제출 시기는 다가오는데, 점수는 안 오르고, 다 잡은 기회 놓칠까 봐 심리적 압박이 어찌나 크던지, 설날에 고향에도 못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하숙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토플공부를 하던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언제든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시간 좀 있을 때 미리 토플공부 해놓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롤모델이 있으신지?

딱히 롤 모델은 없지만, DK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해주신 이창규 회장님이나, 미국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동국대 동문 선배님들처럼, 후배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언제든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런 선배가 되고 싶네요.

한경석 기자

“내 꿈은 글로벌 CEO, 도전 자체로 멋져”

DK글로벌 장학생, 노력과 열정으로 뭉친 신대풍 학생



경영학과 08학번 신대풍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하려면 2박 3일로도 부족하지만 두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열정 그리고 성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똑똑하진 않았지만, 매사에 성실하려고 노력했고 파이팅 넘치는 패기로 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두 단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게 된 경로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학교를 통해 이메 일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장학금과 연관된 사업이라면 굉장히 관심이 많게 찾아보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에 대해 자신감도 없었고, 실력도 없던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

이 필요했었습니다. 제 꿈은 글로벌 CEO. DK 장학생 선발 공고를 봤을 땐 정말 그 뒤로 아우라가 짝 펼쳐지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이건 내가 가야 될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전 자신 있게 붙잡았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도 못되었고, 딱히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전 항상 성실하게 살아오면 기회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잡은 케이스입니다. 제 인생에서 영어 공부만을 위해 투자해온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목표를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투자해 본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제 꿈이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다면 가기 전보다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더 넓은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외로의 여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마음은 당연했고요, 영어도 영어였지만 견문을 넓히는 걸 제 주목적으로 삼았습니다. DK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이창규 회장님께서도,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에도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라고 뭐가 다른가 이 점을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영어를 많이 못해서 토플 준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마치고 4학년에 갔는데, 이때부터 영어를 준비하는 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를 만들기엔 취업, 대외활동 등등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는 후배님들은 꼭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영어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외국 나갔을 때, 공동으로 사는 집에서 거주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생활 하는 게 정말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주어진 자금 안에서 짜임새 있게 살아가며 책임감, 그리고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등등 많은 교훈을 얻는 계기도 됐죠.

미국을 갔을 때 제 스스로 대견했던 일화 중 하나인데, 학교를 다니려면 차가 꼭 필수였습니다. 빠듯한 재정 상태에서 중고차를 사야 됐던 저는 영어도 몰랐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우선 부딪혀보자! 마인드로 온갖 사이트를 뒤지며 정보를 얻고, 직접 인도인 판매자와 연결해 저렴한 가격에 차를 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는 흑인 아저씨한테 괜찮은 가격으로 넘기고 왔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한경석 기자

“기업은 여럿이 가치를 창조하는 집단예술”

프리미엄 유아가구 회사
위위(WeWe)의
CEO가 된
김태용 학생



김태용 학생(경영, 09)

25살이라는 나이에 프리미엄 유아가구 회사 위위(WeWe)의 CEO가 된 김태용 학생(경영,09). 평범한 학생에서 젊은 나이에 회사 CEO가 된 그는 “창업을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보단 가볍게 도전해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말한다.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가볍고 말랑말랑한 ‘폼’이라는 소재로 만든 가구로 가정의 행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 가구들은 성인들의 시각이 반영된 나무와 철, 플라스틱 등 딱딱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 분위기를 해치고 쉽게 질리는 요란한 색과 캐릭터들로 장식되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 중심적 디자인을 철학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를 고려하며 실용성과 안전,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제품이 가볍고 오염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 관리에 편하며,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해 집이 됐다, 침대가 됐다 하는 등의 실용적인 가치를 전합니다. 또 집안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내고 감각적인 컬러만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현재 제품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플레이

하우스, 소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월 말 경 출시 예정입니다.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운명적으로 왔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창업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군대 다녀온 2012년 말부터 ‘기업’이라는 주제에 매료되어서 혼자 여러 회사의 CEO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의 삶과 회사,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매료되었어요. 평소에는 미술이나 글쓰기 같은 창작활동을 즐겨했는데, 무언가 창조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제 창작물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때 느끼는 희열감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업 활동 또한 여럿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집단예술행위로 느껴졌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치를 창조하는 도구로서 창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아이가구’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처음부터 아이가구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작년부터 가족문제나 육아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쉴 때조차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

고 있어야하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안전한 아이 가구를 통해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죠.

창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팀과 자금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은 혼자가 아닌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다 빠르게, 혁신적으로 바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그들이 외로운 길을 기꺼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해요.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 생전 안 다투던 사람과도 다투고 갈라지곤 합니다. 자금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 같아요.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시스템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항목들도 많아요. 또 초기 기업들은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곤 하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디어와 자금으로 꼽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 비전, 책임감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개인이 아닌 팀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창업자의 원래 아이디어도 팀워크를 통해 완전해집니다. 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열정,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비전,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해요. 큰 꿈과 열정을 공유하는 팀에게 아이디어와 자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우리 학교와 산학협력관계에 있는 (주)영보화학에서 기술, 자본 일부를 지원받으며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제품을 출시하고, 11월 베이비페어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초기에는 매트, 소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집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2년간은 육아가정의 가구들을 최대한 부드러운 소재들로 바꿔 나가려고 해요.

▶ 11면으로 이어집니다.

동국대 청년들의 대동제



팔정도에서 바라본 대동제 축제 현장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동국대학교의 축제, ‘대동제’가 열렸다. 3일간 학교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활기찼다.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들이 열렸다. 팔정도에서는 디저트와 음료 등을 팔고, 재미있는 게임 진행과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18일과 19일에는 가수 10cm와 몽니 그리고 에픽하이와 와서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경영 대학에서는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백년비 앞 도로에서 경영학회, 회계학회, 경영정보학회의 주점이 열렸다. 각 학회는 각자의 스타일로 주점을 운영했다. 경영학회는 병원, 회계학회는 붉은악마, 경영정보학회는 교복으로 주점의 컨셉을 만들었다. 각 학회는 2학기 개강하자마자 주점 장소 확보, 천막대여, 음식 물량 확보, 재료확보 등 주점

준비에 열심이었고, 그 결과 세 학회 모두 성공적인 축제로 마감했다.

경영대학 회계학회 1학년 과대표 이강범(21) 학생은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았지만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와서 도와주고 같이 준비를 하면서 고생했지만 추억을 만든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제의 흥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 내년에는 적극적인 흥보로 타 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축제 후에 뒷정리가 부족해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청소하시는 어머님들이 고생하시는 점은 모두가 개선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김도원 기자

▶ 10면에서 이어집니다.

침대, 수납장, 테이블 등 이후에는 성인가구 또는 레고처럼 방 전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모듈 등을 만들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가방끈이 길어지면 겹도 같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100세까지 살 것이고, 지금은 우리 일생 전체에서 잃을 것이 가장 없는 시기거든요. 패기만으로도 미숙

함이 용서가 되고요. 단순한 아이디어들을 주변의 똑똑한 친구들과 공유하며 우선 뭔가 시작 해보세요. 많은 성공창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와 행동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행동부터 하다보면 좀 더 피부 깊숙이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때 필요한 부분들을 학교나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채워나가는 것이 좋고, 이때의 배움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저질러놓은 젊음을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야박하진 않아요.

최호정 기자, 진예지 기자

경영대 Fashionista

박창인 (경영14)



모자 얼번아우퍼터스
 자켓 빈티지
 블라우스 이브생로랑
 치마 빈티지
 신발 컨버스

경영대학 패셔니스타 그 5번째 모델 박창인 양은 신입생이라면 한번쯤 봤을 패셔니스타다.

박창인 양은 가을이고 2학기 개강시즌인 만큼 가을에 어울리는 룩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어 봤어요.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겹옷으로 검은색 자켓을 골라 봤어요.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룩을 입는 게 제 스타일이예요. 포인트는 특별히 따로 없고 오늘 입은 옷들 하나하나가 모두 좋아서 골라서 입다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은 것 같아요. 포인트라고 하면 치마와 블라우스 사이에 심심할 것 같아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힐이나 구두도 종종 신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캔버스로 학생 분위기를 내봤어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레이어드룩이 가장 실용성도 좋고 무난하게 이쁜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는 레이어드룩으로 스타일링 해보세요!”

김도원 기자



자부심 위의 자부심 Dongguk MBA

텍사스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Global
MBA**
(full-time)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Executive
MBA**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

**Entrepreneurship
MBA**

경영학을 바탕으로 제약분야를
신도하는 국내 최초

**Pharm
MBA**

사회 각 분야의
최고 리더를 양성하는

**Leadership
MBA**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교환학생 프로그램
(GMAT면제, in-state tuition 등 특별 혜택 제공)

중국 Sun Yat-se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전 강좌 영어수업)



2012년 AACSB인증 획득
AACSB는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Business School이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질제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5 전기 신입생모집

- 원서접수 2014년 10월 13일(월) ~ 11월 11일(화)
- 면접일 2014년 11월 15일(토)
- 02-2260-8884~5 / mba.dongguk.edu

